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의 의의와 준비



박 성 원

WCC 제10차 총회의 의의와 준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General Assembly)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사 42:1~4)란 주제로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총회는 1961년 뉴델리에서 열렸던 제3차 총회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총회이며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와 만나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만나는 역사적인 기회이다.

한국교회는 WCC 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WCC총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WCC총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WCC총회는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WCC에 대해 오해하고 WCC 총회를 반대하는데 왜 그런가? 그 오해는 사실인가? 특별히 이 소책자는 WCC총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오해를 해소하고 나아가 WCC대한 한국교회의 바른 이해와 준비를 돕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부산총회를 통해 WCC와 WCC 총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세계교회와의 만남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믿음의 잔치인 WCC총회를 계기로 세계교회의 선교의 문이 열리며 더불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새로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길 바란다.

제1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WCC 제10차 총회

1. WCC란 무엇인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만물”(All Inhabitants on Earth)을 뜻하는 ‘오이쿠메네’(οικουμένη)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이다. WCC는 2010년 1월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의 349개의 개신교회와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여기에 속한 기독교인수가 약 5억 8천만에 달하는 세계적 기독교연합기구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직 WCC의 회원교회는 아니지만 WCC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위원회에는 정식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WCC는 명실 공히 전 세계 기독교를 망라한 기독교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다.

WCC 가맹교단 세계분포도



2. WCC 총회는 어떤 교회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의 교회는 초기부터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행 5장)

교회의 주요 분열역사

- ✧ 5세기 칼세돈 회의때 동방교회간의 분열
- ✧ 11세기 -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
- ✧ 16세기 - 종교개혁으로 분열
- ✧ 19세기에는 선교운동으로 핵분열

에큐메니칼운동은 2천년 교회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다. '교회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교회의 반성은 세계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며 WCC는 교회일치운동의 중심에 있다.

에큐메니칼운동은 20세기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초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미 신약시대부터 시작된다. 초대교회의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 회의(행 15:1-29)가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이다.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 이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견이 있을 때마다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공의회(Ecumenical Council)를 소집했다.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이해의 조정', '교회의 복음증언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회의 일치를 추구했다. 역사적으로 니케아회의, 칼세돈회의, 에베소회의, 콘스탄티노플회의들이 대표적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이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동서 교회분열 이후 동서교회가 대부분 참여하는 근대적 형태의 공의회로 발전하는데 WCC총회가 바로 근대적 형태의 공의회이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는 교회사적 측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에큐메니칼공의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3. WCC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슨 일을 하는가?

19세기 세계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일치의 기운이 강하게 감돌았다. 1810년, 영국침례교회 인도선교사 윌리엄 케리가 세계선교사들이 10년에 한번은 함께 만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으로 근대 세계교회의 일치운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의 꿈은 100년 뒤인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에서 이루어졌으며 에딘버러 국제선교대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의 모태가 된다. 그 후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는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 암스테르담 WCC 창립총회가 있기까지 기나긴 일치와 협력을 향한 여정을 지나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창설되었다 할 수 있다.

1919년, 동방정교회는 19세기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세계 나라들이 국제연맹(*κοινωνια των εθνων, Koinonia ton Ethnon*)을 창설하는 것을 보고 교회도 교회연맹(*κοινωνια των εκκλησιων, Koinonia ton Ekklesion*)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요구는 1910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이미 시작되어 "선교와 일치"운동에 이어, 이후에 형성된 "삶과 노동" 운동, "신앙과 직제"운동, 1780년에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에 의해 제창된 주일학교운동으로 이어진 "신학교육" 운동 등 여러 물줄기들이 합해져 거대한 세계교회일치 운동의 강물로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WCC 창설의 여명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후 1938년에 WCC 헌장이 초안되고 1941년에 창설될 예정이었으나 세계 제2차 대전 관계로 연기되어 WCC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창립하게 된 것이다.

WCC는 지난 60여 년 동안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해 왔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지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해 오고 있다.

- ▷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 세계 교회의 교리들을 서로 연구하고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해 나간다.
- ▷ 선교와 일치 (Mission and Unity) - 세계교회와 공동의 선교과제를 함께 찾고 함께 선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 ▷ 봉사과 협력 (Diakonia and Cooperation) -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연약한 교회, 고난 받는 교회를 봉사하고 협력한다.
- ▷ 국제문제 (International Affairs) - 세계와 인류가 함께 감당해야 할 국제간의 문제나 세계의 문제를 위해 교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한다.
- ▷ 신학교육 (Theological Education) - 세계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기독교교육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도모한다.

WCC는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칼 센터(150, route de Ferney 1211 Geneva 2, Switzerland, <http://www.oikoumene.org>)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총무를 비롯하여 약 100여명의 직원이 봉사하고 있다. WCC의 최고 의결기구인 7년 혹은 8년마다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이다. 총회에서 선출된 15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가 WCC 총회를 운영해 나간다.

4. WCC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WCC총회는 7년 혹은 8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최고 치리구조로서 '기독교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WCC총회는 세계의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시대의 공동의 선교적 사명을 분별하고 공동의 증언과 공동의 봉사 과제를 설정하는 전 세계 교회의 신앙축제(Festival of Faith)이다. 그리고 다음 총회 때까지 진행할 정책을 결정하고 총회를 대표해서 이를 집행할 150명 규모의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를 구성한다.

WCC 역대총회의 때와 장소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창립총회 -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텔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 제2차 총회 1954년 미국 에반스톤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희망"
✧ 제3차 총회 1961년 인도 뉴델리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빛"
✧ 제4차 총회 1968년 스웨덴 옉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제5차 총회 1975년 케냐 나이로비	"자유케 하시며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 제6차 총회 1983년 캐나다 밴쿠버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
✧ 제7차 총회 1991년 호주 캔베라	"오소서, 성령이여,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 제8차 총회 1998년 짐바브웨 하라레	"하나님께 돌아가서 소망중에 기뻐하라"
✧ 제9차 총회 2006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 제10차총회 2013년 한국 부산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WCC 역대총회



에큐메니칼 총회의 핵심은 예배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성례전적 일치이므로 세계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WCC 총회에서 중요한 것이라 할수 있다. . 따라서 WCC 총회는 예배와 성경공부, 신학 토론과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WCC 총회의 진행은 먼저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는 아침예배로 시작하고 이어 1시간가량의 그룹별 성경공부를 한다. 예배와 성경공부시간 이후에는 잠깐의 휴식을 가지고 첫 번째 회무처리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교회별로 기도회를 드린다든지 또는 여러 이슈를 가지고 그룹별 모임을 가진다. 이러 회의를 계속하고 저녁 6시30분부터 30여분동안 드리는 기도로 하루일과를 마무리한다.

총회는 공식총대들이 참여하는 본 회의 이외에도 총회가 세계교회와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선교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장외프로그램이 진행된다. WCC 총회는 전통적으로 장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장외 프로그램은 총회를 개최하는 나라와 세계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나누는 장(場)된다. 이러한 장(場)은 8차 총회가 열렸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파다레”(Padare)였고, 제9차 총회가 열렸던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무치롱”(Muchirao)이었다.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될것이다. 마당에는 각각 부스를 만들고 전시회, 대화모임, 워크샵 등을 하면서 세계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공동선교 공동봉사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방문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WCC총회의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미리 등록하면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총회 전에 청년대회, 여성대회 등 총회사전 행사를 가지는데 부산총회 때는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등 4개 사전대회가 열린다. 총회를 초청하는 지역교회는 총회를 전후하여 중앙위원들의 교제를 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가지며 총회 기간 중 주일에 총대가 흠어져 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도 가진다.

역대총회의 개관 (YouTube) 동영상

- 1948 암스테르담에서 2013 부산으로 -

5. 부산총회의 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

제 10차 WCC 부산총회는 21세기의 첫 번째의 10년에 진입하는 역사적 총회이다. 세계교회는 제10차 총회를 통해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읽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교적 헌신을 할 것인가?

2010년 제네바에서 열린 WCC중앙위원회는 WCC 제10차 총회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사 42:1-4)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부 주제를 정했다.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교회 일치와 선교

Life Together in Faith: Unity and Mission)

소망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세계의 정의, 평화, 화해

Life Together in Hope: Justice,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world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공동의 미래

Life Together in Love: a Common Future

WCC 총회 주제를 정하는 데는 오늘 세계의 에큐메니칼 지형, 에큐메니칼 공동관심, 시대의 징조, 교회의 선교적 과제 등을 염두에 두고 정하는데 특히 총회를 유치하는 교회, 그리고 그 대륙의 처한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정한다.

이런 관례에 따라 한국교회와 아시아 교회는 주제 제안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현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선교의 과제를 '생명', '정의', '평화'로 보고 이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WCC 총회준비위원회와 WCC 중앙위원회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부산총회 주제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로 결정했다.

이 주제는 어떤 신학적, 선교적 의미를 가지는가?

WCC 총회는 7년마다 열리는데 부산총회가 열리는 2013년부터 그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0년까지의 7년은 인류 문명사에 아주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의 시대이다. 경제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생태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이 겪은 쓰나미와 원자력발전소 위기는 생태위기가 재앙의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는 이제 삶의 현실로 다가왔다.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2020년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고 2020년까지 현재의 인류문명이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엄청난 생태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서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의 개념과 무기의 개념이 바뀌었다. 방어적이던 전쟁의 개념은 선제공격으로, 전쟁개시와 종전이란 한시적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한전쟁으로 바뀌었다. 핵무기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무기개발은 무시간적 무공간적 차원의 무기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는 어떤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세계경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세계적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명 간의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세계개혁신교회연맹이 2004년 아크라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를 신앙적으로 반대하는

아크라신앙고백(The Accra Confession)을 선언할 때만 해도 경제위기가 이렇게 세계를 강타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10년도 채 못 되어 세계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돌입했고 그렇게 튼튼하던 유럽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 위기는 더욱 큰 위기로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란 주제로 모이는 WCC 2013년 부산 총회는 인류문명 앞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교회는 21세기가 더욱 깊어지는 이 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세상에 대해 어떤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신학적, 선교적 고민과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민들은 WCC 총회 준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WCC에서는 폭력극복 10년 운동에 연이어 가난퇴치와 기후변화를 위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자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부산총회는 이 새로운 운동의 발전과 함께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중심의 문명(Life-giving civilization)을 건설하기 위한 선교적 행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중심의 문명(Life-giving civilization)은 우주공동체를 관계적이고 유기적인 상생의 생명공동체로 인식하는 아시아적 사고로 신학을 새롭게 조명하고 실천하는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6.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나눌 은사

한국교회는 한국을 찾아오는 세계교회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나눌 것인가?

WCC 10차 총회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데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는 강력한 영성과 선교적 동력을 가진 젊은 교회라는 점, 둘째는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형 교회라는 점, 셋째는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교회가 공존하며 협력적이라는 점, 넷째는 WCC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구체화하려는 뜻이 있다는 점, 다섯째는 한국교회는 3.1운동처럼 역사적으로 타종교와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들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부산에 찾아오는 WCC총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계교회에 나눌 여러 가지 선물이 있다.

1) 한국교회의 강력한 영성이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세계교회속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기도와 성경공부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으로 신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선교와 봉사는 인간의 자선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사업에의 참여라고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강력한 영성은 분명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 은사이다.

2) 한국교회의 강력한 선교이다.

한국교회는 선교역사상 유일하게 선교를 받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된 교회이다. 지금 세계교회는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능력 등 복음전도의 동력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의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에큐메니칼 정신과 더불어 나아간다면 한국교회의 선교는 21세기 세계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 한국교회의 강력한 선교의

열정은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 은사이다.

3) 한국교회의 봉사정신이다.

한국교회의 봉사는 그 규모가 서구교회만큼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봉사는 깊은 영성에 뿌리를 둔 순발력이 뛰어나고 헌신적인 봉사이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 이후에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는 일, 태안반도 기름 제거 봉사, 이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일,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일 등 순발력 있고 헌신적인 봉사들이 그 예다. 한국교회 집중적인 봉사의 실천정신은 세계교회와 나누어야 할 은사이다.

4)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와 사회적 증언의 경험이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 걸어온 교회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근 . 현대사속에서 한국교회는 봉건사회로부터의 이행에서 사회개혁, 일체침탈과 식민통치과정에서 독립운동, 독재체제 하에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터부시되는 통일논의의 물꼬를 튼 것과 세계교회사 속에 유래없는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의 경험 등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함께한 사적 증언의 공동체이다.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와 사회적 증언의 경험은 세계교회와 나누어야 할 은사이다.

5) 한국교회의 헌신정신과 자립정신이다.

한국교회는 자립적인 교회이다. 대외의존에 매달리기 보다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 내려고 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가 교회건축을 할 때 보면 온 교인이 헌금하고 어떤 교인은 집문서를 내어놓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건축한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지역, 남미 지역의 교회들에게 아주 큰 용기와 전략적 사고를 던져줄 수 있는 장점이다. 한국교회의 헌신과 자립정신은 세계교회와 나누어야 할 은사이다.

이 외에도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 다문화선교경험, 생명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은사들을 나눌 수 있다.

한국교회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단점도 많다. 한국교회의 단점 중에 가장 심각한 단점은 일치의 영성과 협력의 정신이 부족한 점이다. 만약 이 점만 고친다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앞에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다.

7. 한국교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WCC총회가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잘 준비하여야 한다. 부산총회의 외형적 행사보다는 총회의 내용과 그 의미를 고민하여야 한다. WCC총회를 통한 믿음의 잔치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미치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 차분한 마음으로 한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부산총회 준비를 가치차원과 실질 차원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치차원의 준비

▷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의 전유물이 아니다. 에큐메니즘은 “하나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며 하

나님의 뜻이며 성경적 비전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개교회도 WCC총회를 계기로 “하나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 성서적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시 새기는 신앙훈련이 필요하다.

- ▷ WCC 총회를 통해 세계의 교회와 연결됨으로 교회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he Church)을 이루는 교회론적 인식과 신학적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 ▷ 한국교회가 WCC총회를 유치할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회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 자신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선교된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된 교회에 걸맞은 성숙한 인식과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 ▷ 한국교회의 선교를 협력적 선교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의 봉사는 참으로 겸손하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도 좋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선교지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를 에큐메니칼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 WCC를 비롯하여 세계교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WCC에 대한 오해도 극복해야 하고 편견도 극복해야 하며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계교회, 특히 전통이 다른 교회에 대한 관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 WCC총회 주제와 총회에서 논의될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실질적 차원의 준비

- ▷ 교회와 개인이 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집회 시에 그리고 개인기도 시간에 WCC 제10차 총회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문 예 -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기도카드의 기도문)
- ▷ WCC와 에큐메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공부한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과 각 신학대학에서 나온 자료 참조)
- ▷ 소속 교단과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여러 자료와 세미나 강연회 집회 등에 참여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모임 공지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각 교단 홈페이지 참조)
- ▷ WCC 총회 성경공부 교제를 이용해 각 교회가 성경공부를 자발적으로 가진다.
- ▷ 에큐메니칼 찬송을 부르며 세계교회의 영성을 나눈다.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에큐메니칼 찬송 참조)
- ▷ WCC 총회에 참여하는 각 나라의 역사, 문화, 교회 등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한다.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홈페이지의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 코너 참조)
- ▷ WCC 총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 홍보를 한다.

- ▷ 자원봉사자 모집 응모에 참여하여 기회가 주어지면 실질적으로 봉사한다.
- ▷ WCC 총회 기간 중 진행될 마당 (워크숍, 전시회, 대화모임 등)에 참여한다.
- ▷ WCC 총회참석자들이 총회전후에 개 교회나 단체나 지역을 사전 혹은 사후 방문하도록 할 수 있다.
- ▷ WCC 총회참석자들이 2013년 11월 2일(토) ~ 3일(주일) 주말에 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한다.
- ▷ WCC 총회 기간전체에 등록하여 방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 ▷ WCC 총회기간 중 일일방문자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모든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 문의한다.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110-7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6호
전화: 02-783-2013, 팩스 02-763-2015
홈페이지: <http://www.wcc2013.kr>
이메일: info@wcc2013.kr

제2부 WCC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한국교회는 WCC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감리교회, 기장, 성공회, 예장통합 등 WCC 회원교회는 물론 구세군, 복음교회, 정교회, 오순절 교회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WCC와 WCC총회에 대해 반대하는 교단들도 있다.

한국교회 일부의 WCC에 대한 오해에는 미국의 반공주의자이자 근본주의자인 맥킨타이어의 영향아래 WCC를 용공주의, 자유주의로 몰아세운 것과 70, 80년대 군사정권아래 WCC가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해 지원을 한 것을 보고 군사정부가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집단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 때문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와서는 종교 간의 대화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이 정당한가? 어떤 교회나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때는 그 기관의 공식입장에 근거해야 한다. WCC와 WCC 총회에 대해 교단 안에서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적 차원에서의 공식적 입장에 근거하여 WCC와 WCC총회를 이해해야 한다.

1) “WCC는 세계단일교회를 지향한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WCC는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원인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WCC가 세계 단일교회 형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차 총회에 보고된 에큐메니칼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친선과 협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참가하여 왔으니 계속 참가하기로 하되, 단일교회를 지향하는 운동에 대하여는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WCC가 세계 단일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당시에 오해였고 지금도 오해이다. WCC는 1948년 창립총회 이후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WCC 중앙위원회로 하여금 협의회의 성격, 협의회와 회원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 연구토록 했다. 토론토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연구하여 “토론토 성명서”(Toronto Statement)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에는 “WCC가 아닌 것”과 “WCC의 기초가 되는 강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그 중 “WCC가 아닌 것”으로 제시된 첫째 조항에 “세계교회협의회는 단일교회(Super Church)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첫 번째 항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세계교회협의회는 단일교회도 아니고, “세계교회도 아니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Una Sancta)도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WCC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의 교제와 공동선교,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WCC의 기초가 되는 강령” 제3항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가 각각 속한 교단보다 더 크다.”는 부분이다. 세상에 어떤 교단이나 교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각각 보편적 교회이나 홀로 있어선 온전한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없다. 각 교회는 다른 교회와 서로 거룩한 교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들이 대화하며 교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거룩한(Una Sancta)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거하고(Stay Together), 함께 기도하

고(Pray together), 함께 일하고(Work together), 함께 봉사하며(Serve together), 함께 자라자(Grow together)'는 것이 WCC의 정신이다.

2) "WCC의 신앙고백이 의심스럽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이는 WCC의 기본입장을 모르는 견해이다. WCC는 헌장 1조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Fellowship, *Koinonia*)이다."¹⁾ "라고 그 신앙적 근거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WCC는 같은 헌장에서 "한 믿음, 한 성례전적 교제 안에서의 가시적 일치, 예배와 공동생활,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기능을 밝히고 있다. WCC는 이처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위에 굳게 선 세계교회 연합체이다.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교회의 공동 노력이다.

WCC에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온갖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단체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고 극단적인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WCC의 회원교회가 되는 과정만 보아도 드러난다. WCC의 회원이 되려면 먼저 헌장 1조에 해당하는 교회의 신앙고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중앙위원회 회원영입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통과되면 해당 국가에 이미 회원이 되어 있는 교회에 신청교회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다. 만일 입회신청을 한 교회가 정당한 교회가 아니라면 WCC는 결코 그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앙고백에 있어 정교회는 개신교회보다 더 엄격하다. 만약 WCC의 신앙고백이 의심스럽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정교회는 어떤 개신교회보다도 먼저 WCC를 탈퇴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총회에서 그 어떤 교회도 WCC의 신앙고백을 의심한 교회는 없다.

3) "WCC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이 주장은 사실인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위 헌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한다는 것이 곧 선교라는 사실도 명시되어 있지만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선교와 일치를 위해 전 세계교회가 함께 모인 세계선교대회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직접적 배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도 WCC안에는 에딘버러 대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국에는 '선교와 전도 일치국'이 설치되어 세계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지원과 협력, 선교신학의 성찰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WCC 선교와 전도위원회는 복음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야 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WCC는 총회와 별도로 총회만큼이나 큰 규모로 진행되는 양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신앙과 직제 대회이고 다른 하나가 선교를 다루는 선교와 전도 대회이다. 부산총회에서도 새

1)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s a fellowship of churches which confess the Lord Jesus Christ as God and Saviour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erefore seek to fulfill together their common calling to the glory of the o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로운 에큐메니칼 선교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최근에 WCC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로마카톨릭교회와 더불어 선교에 대한 행동강령에 합의한 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선교에 있어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권과 로마카톨릭교회까지도 선교강령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 합의가 다른 종교가 강세인 지역에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합의에는 복음전도는 어떤 국가나 어떤 문화나 어떤 체제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하였다.

복음주의권 선교문서인 1974년에 작성된 세계선교에 대한 로잔협약은 “선교란 온 교회(the whole church)로 하여금 온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the whole world)에 증거하게 하는 것” 이라고 정리했는데 이것은 초대 WCC 총무를 역임한 네델란드 신학자 비써 후프트 (Visser't Hooft) 박사가 WCC에서 발표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WCC의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주의권인 세계복음주의연맹이나 로잔협약 쪽도 수용하고 있는 선교관이다.

4) “WCC는 용공이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시대착오적 말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WCC 창립총회때 이미 격렬한 논쟁을 한 바 있다.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복음의 정신과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때 WCC는 ‘교회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도 지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음은 인간의 이념 그 위에 존재한다. 당시 공산주의 권에서 온 교회들과 자본주의 권에서 온 교회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이념적 체계가 서로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신앙고백 위에 함께 머물기로 (Stay together) 서약했다. 이후 WCC는 복음 이외에 어떤 이념도 편향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다. 자본주의도 지지한 적 없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지지한 적이 없다. WCC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WCC는 냉전시대 때 공산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교회로 받아들였고 함께 교제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두고 용공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복음을 이념 아래에 두는 셈이 된다. 혹자는 WCC가 인종차별철폐운동을 지원했다고 해서 용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란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한 WCC가 인민해방운동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동서냉전시대에 많은 민족운동들이 이런 오해를 받았었다. 만약 일제치하의 우리 독립운동이 이 시대에 전개되었다면 같은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아래 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 WCC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교회가 세계교회와 연결되는데도 WCC가 정치적 장벽을 무릅쓰고 교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 WCC가 용공이란 주장을 한다면 지금 북한교회와 만나며 교제하며 지원하는 한국교회는 모두 용공이 되고 만다. 한국교회는 북한교회를 남한교회와 연결해 준 WCC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5)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인가?

WCC를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WCC가 사회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WCC에는 선교와 전도, 기독교교육 이외에 거대한 양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 흐름으로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과 일’로서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한국에는 WCC가 70, 80년대의 정치사회상황과 관련하여 인권과 민주화에 연대했기 때문에 WCC의 사회선교적 측면만 부각되어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WCC안에 이 두 흐름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교회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사이에서 갈등했듯이 이 갈등과 견제가 지금도 WCC속에 상존하고 있다.

사회선교에도 두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권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증언이고 이것과 대등하게 큰 또 하나의 사회선교는 봉사(Diakonia)이다. WCC의 사회선교에는 봉사의 면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WCC 창설직후 WCC의 대부분의 사회선교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사회와 유럽교회의 재건에 집중되었다. 이 에큐메니칼 독려로 오늘 유럽교회에서의 봉사는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WCC 총회를 계기로 WCC의 신앙과 영성, 선교와 봉사 부분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양쪽 날개 모두를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WCC의 사회적 증언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부분은 WCC의 사회적 증언은 신앙적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WCC의 사회적 증언은 사회참여 차원이 아니고 복음증언의 차원이다. WCC의 사회참여는 복음에 대한 신실성 때문에 이루어진다. 인종주의에 대한 WCC의 입장이 그 한 예이다. 1954년 제2차 에반스톤 총회에서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총회는 “인종, 피부색, 종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위배된다.”¹⁾고 선언하고 모든 회원교회가 자신들의 삶과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나치주의에 대한 독일 고백교회의 바르멘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외의 어떤 주권도 인정할 수 없는 독일교회의 신앙고백 행동이었고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고 격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에 대한 저항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인종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복음에 대한 고백이었다. WCC의 사회증언은 교회의 사회참여, 정치참여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복음의 선포, 신앙의 증언으로 이해해야 한다.

6) “WCC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는 올바른 이해인가?

솔직히 말하면 WCC의 신학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WCC는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공통의 신학적 견해를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협의체’(council)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WCC 고유의 신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WCC 안에는 여러 신학노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유주의 신학도 존재하고 보수주의적 신학도 존재한다. 정교회의 신학은 한국의 보수신학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회원교회 중에는 복음주의교회, 성령운동인 오순절 교회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다. WCC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일변도로 비춰진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는 WCC가 주로 인권이나 민주화 등 사회적 증언 쪽으로만 알려져서 그렇게 비춰진 면이 있다.

WCC의 신학적 성향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비친 이유는 구원은 전통적인 인간 영혼구원 만에 머물지 않고 온 복음(the whole Gospel)은 인간 영혼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전적 인간(the whole human beings)의 구원으로 넓혀서 이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온 복음이란 인종차별로부터의 구원, 성차별로부터의 구원,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간의 사회적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이런 이해는 세계의 복음주의교회들도 공감하고 있는 바다.

우리 한국교회에 친숙하지 않는 WCC 신학은 동방정교회의 신학이다. 동방정교회의 신학은 우리 한국 개신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 신앙과 직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신학은 이런 사회참여의 신학보다도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교적 위탁을 받은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고백하며 한 세례공동체로서 한 주님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도 세계 교회의 신학과 접하고 교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7) “WCC는 가시적 일치를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WCC가 가시적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 WCC가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만약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구조적 일치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WCC가 추구하는 그 가시적 일치란 외형적 일치 혹은 구조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가 되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셨고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선교와 일치의 부름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태가 된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 비전이기도 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는 이런 선교적 목적 때문이지 결코 세계 교회의 외형적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WCC가 항상 강조하는 일치는 다양성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이다. 앞서서 언급한 WCC 토론토 문서 “WCC 기초가 되는 강령들” 8항에 밝힌바 “WCC 회원교회는 서로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 서로 배우며 서로 도와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의 삶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1항에서 “WCC 회원교회들은 대화를 하든지 협력을 하든지 교회의 공동증언을 하든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거룩한 머리라는 공동의 인식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교회는 다양하지만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양한 지체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이다.

8) “WCC는 다원주의이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WCC는 종교간의 교리를 섞은 적이 한 번도 없다. WCC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의 교회를 표방하는 가시적

일치라 할지라도 교리적 차원에서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WCC밖에 있는 로마 카톨릭교회도 그렇지만 WCC안에 있는 양대 교회, 즉 정교회와 개신교회도 결코 서로의 교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교리적 일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WCC를 통해 세계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WCC 회원교회가 한 자리에서 성만찬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한 이해도 달라서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데 하물며 종교 간의 교리를 섞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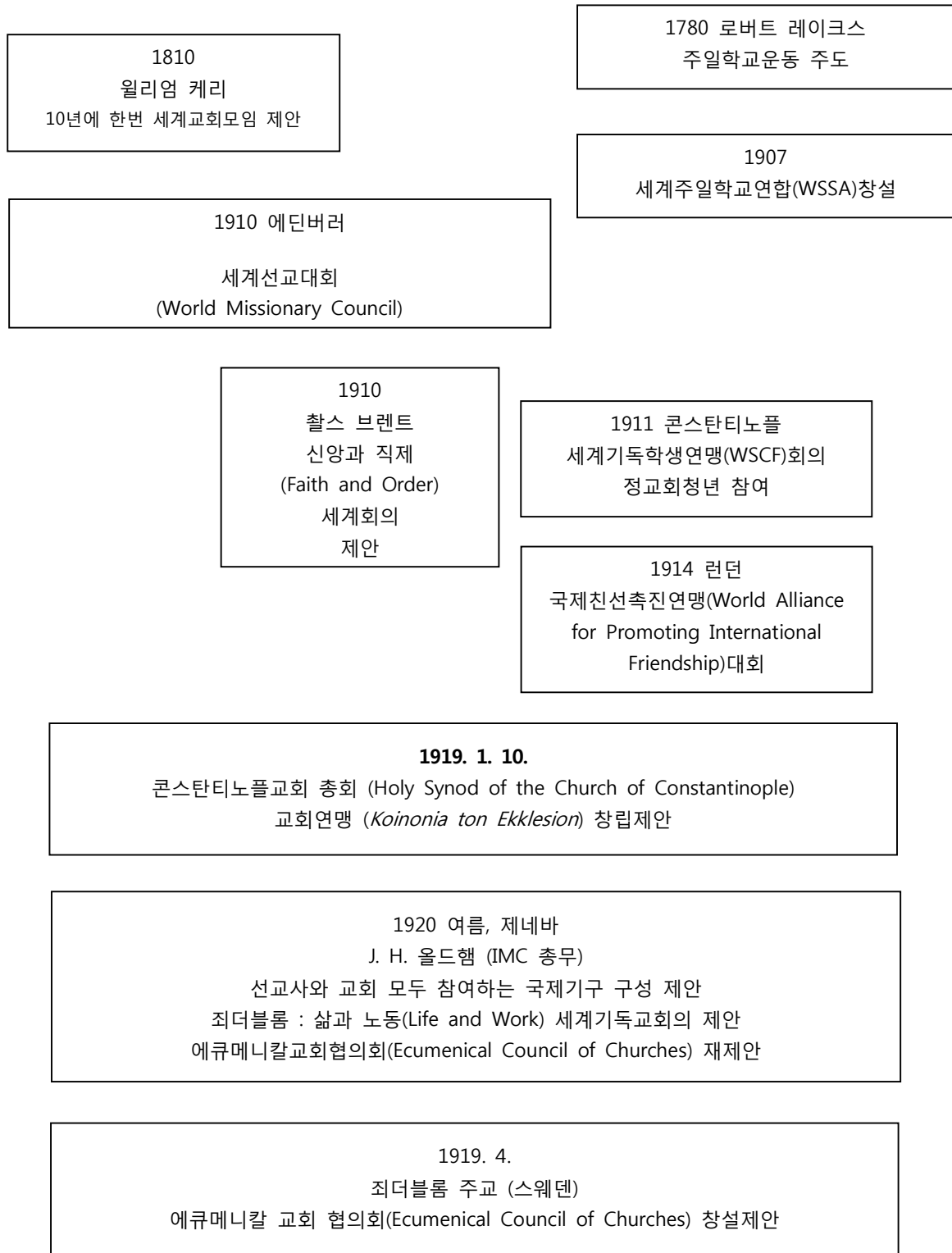
그러나 WCC는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독립선언을 했듯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해를 위한 인류공동의 과제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종교 간의 협력과 다원주의는 다르다.

WCC가 종교간의 대화를 해 온 데에는 역사적 필요의 배경이 있다. 에큐메니칼운동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맨 처음에 거론한 것은 WCC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제선교협의회가 1928년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가졌을 때였다. 당시 세계에는 세속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는데 종교가 사회를 향해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종교 간의 대화는 WCC의 주요 과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WCC 제3차 총회 때였다. 세계 주요 종교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아시아에 오면서 아시아의 종교를 접하고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타종교의 가르침 앞에 기독교는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망에서였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총회에는 타종교 지도자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막상 타종교 지도자를 초청한 상황에서 많은 총대들이 대화에 대해 주저하기 시작하였다. 혹시 대화를 하다가 기독교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그래서 총회는 WCC가 종교간의 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결의하였다. 이 모두는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를 가지되 원칙 없이 하지 말고 기독교정체성을 지키려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대화는 절실했던 것은 9.11 사태이후이다. 이때부터는 종교 간의 대화보다는 종교간의 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대화는 선교의 시작이며 영성에 대한 추구의 공동여정이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때로는 깊은 진리를 접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여인과 우물가에서 가진 대화는 사마리아여인으로 하여금 영생의 의미에 대해 깨닫는 대화의 시초였다. 선교사들의 선교는 항상 비 기독교권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WCC는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기독교신앙의 진수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도 하고 타종교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 인류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처를 하는데, 그것도 신앙공동체의 차원에서 협력을 하는 모습은 세속사회가 종교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하게 하는데 선교적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부록 1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생성에서 총회에 이르기까지



1921
국제선교협의회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창설

1924
세계주일학교연합
(World's Sunday
School Association:
WSSA
재편

1927, 로잔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세계대회

1925, 스톡홀름
삶과 일
세계 대회
(Universal Christian
Conference on
Life and Work)

1937 옥스포드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세계대회
WCC 편입

1937 에딘버러
삶과 일
(Life and Work)
세계대회
WCC 편입

1938 우트레흐트
WCC 헌장 (Constitution) 초안
1941년 여름 WCC 창설 계획
세계제2차대전으로 연기

**1948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창립**

1954 에반스톤
WCC 제2차 총회

